

1.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다음 규정이 적용된 것은?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① 독도: Dok-do ② 반구대: Ban-gudae
③ 독립문: Dok-rip-mun ④ 인왕리: Inwang-ri

1. 답) ②. [난도 하, 로마자 표기] - 예상한 문제 유형

‘Bangudae’로 쓰면 ‘방우대’로 읽을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써서 ‘Ban-gudae’로 쓴 것이다.

<오답 콕>

- ① Dokdo: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써야 한다.
③ Dongnimmun: 독립문은 [동님문]으로 발음한다. 우리의 로마자 표기는 발음대로 적는 ‘전음법’에 따라 적어야 한다. 그리고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써야 한다.
④ Inwang-ri: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 로’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 ro’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2.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문’은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런 현실은 ‘언간’에도 적용된다. ‘언간’ 사용의 제약은 무엇보다 이것을 주고받은 사람의 성별(性別)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15세기 후반 이래로 술한 언간이 현전하지만 남성 간에 주고받은 언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남성 간에는 한문 간찰이 오간 때문이나 남성이 공식적인 영역을 독점했던 당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언문’이 공식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과 상통한다. 결국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하여 종래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 때문에 내간이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16, 17세기의 것만 하더라도 수신자는 왕이나 사대부를 비롯하여 한글 해독 능력이 있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계층의 남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문 간찰이 사대부 계층 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 ① ‘언문’과 마찬가지로 ‘언간’의 실용 범위에는 제약이 있었다.
②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해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졌다.
③ 언간은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④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2. 답) ③. [난도 중, 읽기 - 중심내용] - 예상한 문제 유형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은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런데 언간은 16, 17세기의 것만 하더라도 수신자는 왕이나 사대부를 비롯하여 한글 해독 능력이 있는 하층민

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계층의 남성이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가 중심 내용이 된다.

3. (가)~(라)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수학 성적은 참 좋군. 국어 성적도 좋고.
(나) 친구가 “난 학교에 안 가겠다.”고 말했다.
(다)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라) 대통령은 진지한 연설로서 국민을 설득했다.

① (가): ‘수학 성적은 참 좋군.’은 국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 ‘은’을 주격 조사 ‘이’로 바꿔 쓴다.

② (나): 직접 인용문 다음이므로 인용 조사는 ‘고’가 아닌 ‘라고’를 쓴다.

③ (다): 어미 ‘-면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고’로 바꿔 쓴다.

④ (라): ‘로서’는 자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수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조사 ‘로써’로 바꿔 쓴다.

3. 답) ③. [난도 중, 품사(조사)-퇴고] - 예상한 문제 유형

‘-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쳐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다. 그러므로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옳지 않다.

<오답 콕>

- ① 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수학과 국어가 대조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쓸 수 있으므로 ‘수학 성적은 참 좋군, 국어 성적은 나쁘지만’처럼 쓸 수 있다.
② ·라고: 앞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고: 앞말이 간접 인용 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④ ·로써: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
·로서: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

4. <보기>를 근거로 판단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통일성은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관련되는 특성을 말한다. 초고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에는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중심 내용에 부합하는 하위 내용들로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사람들은 대개 수학 과목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 ㉠바로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시는 수학 선생님 덕분이다. 수학 선생님은 유머로 딱딱한 수학 시간을 웃음바다로 만들곤 한다. ㉡줄리는 오후 시간에 뜬금없이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자고 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쉽게 설명한 적도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수학 선생님의 인기가 시들 줄 모른다. ㉢그리고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이 나 있다. ㉣내 수학 성적이 좋아진 것도 수학 선생님의 재미있는 수업 덕택이다.

- ① ㉠
③ ㉢

- ② ㉡
④ ㉣

4. 답) ③. [난도 하, 퇴고(단락)-통일성] - 예상한 문제 유형
중심문 ‘나는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와 관련이 없는 문장을 찾으려면 된다. 뒷받침 문장은 왜 수학 시간이 재미있는 것인지 언급해야 한다. 그런데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 때문에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통일성에서 벗어난 것이다.

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내 마음 베어 내어 저 달을 만들고져
구만 리 장천(長天)의 번듯이 걸쳐 있어
고운 님 계신 곳에 가 비추어나 보리라

(나) 열다섯 아리따운 아가씨가
남부끄러워 이별의 말 못 하고
돌아와 겹겹이 문을 닫고는
배꽃 비친 달 보며 흐느낀다

- ① (가)와 (나)에서 ‘달’은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② (가)의 ‘고운 님’과,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③ (가)의 ‘나’는 적극적인 태도로, (나)의 ‘아가씨’는 소극적인 태도로 정서를 드러낸다.
④ (가)의 ‘장천(長天)’은 사랑하는 임이 머무르는 공간이고, (나)의 ‘문’은 사랑하는 임에 대한 마음을 숨기는 공간이다.

5. 답) ③. [난도 중, 시조/한시] - 예상한 문제 유형
떨어져 있는 임에게 달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적극적인 화자(가)와 부끄러움에 이별의 말도 못하고 달빛 비친 배꽃을 보며 흐느끼는 소극적 자아(나)가 나왔다.

·(가): 정철의 시조

·(나): 임제의 ‘무어별’

十五越溪女(십오월계녀)

羞人無語別(수인무어별)

歸來掩重門(귀래엄중문)

泣向梨花月(읍향이화월)

<오답 콕>

- ① (나)의 ‘달’은 화자의 슬픔을 위로하는 대상이다.
②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시적 화자다.
④ (가)의 ‘장천(長天)’은 임을 비출 수 있는 하늘을 의미하는 곳으로 임이 있는 곳은 아니다.

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툭툭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멎은 줄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싸룩싸룩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광재구, ‘사평역에서’ -

- ① ㉠ - 여러 개의 난로가 지퍼져 안온한 대합실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② ㉡ - 대조적 색채 이미지를 통해, 눈 오는 겨울 풍경의 서정적 정취를 강조하였다.
③ ㉢ - 오랜 병마에 시달린 이들의 비관적 심리와 무례한 행동을 묘사하였다.
④ ㉣ - 화자가 그리워하는 지난 때를 떠올리며 느끼는 정서를 화자의 행위에 투영하였다.

6. 답) ④. [난도 중, 현대시] - 예상한 문제 유형

난로에 손을 쬔며 그리웠던 추억 그리고 삶의 비애를 투영한 시구가 된다.

<오답 콕>

- ① 눈이 내리며 추운 밖과 대조적으로 따뜻한 난로가 지퍼진 대합실을 표현한 것이다. 여러 대의 난로라는 것은 옳지 않다.
② 추위에 얼은 청색의 손바닥은 삶의 고달픔을 상징하는 것으로 서정적 겨울 정취와는 관련이 없다.
③ 오래된 기침과 입술 담배는 쓰디쓴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비판이나 무례와는 관련이 없다.

<미소 콕>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애상적, 서정적, 감각적, 묘사적, 회상적, 시각적

·체제: 사평역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어조: 고요하고 나직하며 삶의 애환이 드러나는 연민과 아픔을 드러내는 애상적 어조

·주제: 삶의 고단함과 애환, 가난한 사람들의 추억과 아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

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세 놓고 욕필이(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하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읊의 배참봉 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욕 잘 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똑 댔다. 장인께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고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푹푹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

- 김유정, '봄봄' -

- ① 마름의 특성을 동물의 외양에 빗대어 낮잡아 표현했다.
- ② 비속어와 존칭어를 혼용하여 해학적 표현을 구사했다.
- ③ 여러 정황을 거론하며 장인의 됄됨이가 마땅치 않음을 드러냈다.
- ④ 장인과 소작인들 사이의 뒷거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제시했다.

7. 답) ④. [난도 중, 현대소설] - 예상한 문제 유형

못마땅한 장인을 설명한 대목이다. 장인과 소작인들 사이의 뒷거래 장면을 대략적으로 제시했다. 생생한 묘사는 찾을 길이 없다.

<오답 콕>

- ① '호박개'에 빗대어 표현했다.
·호박개: 뼈대가 굵고 털이 복슬복슬한 개. 중국에 많이 분포한다,
- ② 이놈의 장인님
- ③ 손버릇, 말버릇, 마름의 행실 등

<미소 콕>

주인공인 '나'는 우직하고 바보스러운 인물이지만 이 작품은 그러한 인간의 우행(愚行)을 연민이나 타애적(他愛的) 감정으로 용인하려는 해학의 따뜻함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서술에 있어 속어적인 어조가 토착적인 정감과 전래의 바보사위 이야기와 같은 인간의 바보스러운 순진성에 대한 연민의 해학미를 더욱 유발시킨다.

8.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_____ (이)란 이익과 관련된 갈등을 인식한 둘 이상의 주체들이 이를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 모여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대안들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공동 의사 결정 과정을 말한다.

- ① 協贊 ② 協奏
- ③ 協助 ④ 協商

8. 답) ④. [난도 중, 어휘-한자어] - 예상한 문제 유형

·協商(협상):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함

<오답 콕>

- ① 協贊(협찬): 어떤 일 따위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줌
- ② 協奏(협주): 독주 악기와 관현악이 합주하면서 독주 악기의 기교가 돋보이게 연주함. 또는 그런 연주
- ③ 協助(협조): 힘을 보태어 도움.

9. 밑줄 친 한자어의 쓰임이 문맥상 적절한 것은?

- ① 초고를 校訂하여 책을 완성하였다.
- ② 내용이 올바른지 서로 交差 검토하시오.
- ③ 전자 문서에 決濟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하겠습니다.
- ④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提高 바랍니다.

9. 답) ①. [난도 상, 어휘-한자] - 예상한 문제 유형

·校訂(교정): 남의 문장 또는 출판물의 잘못된 글자나 글귀 따위를 바르게 고침

<오답 콕>

- ② ·交差(교차): 벼슬아치를 번갈아 임명함
·交叉(교차):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침
- ③ ·決濟(결제):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
·決裁(결재):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재가04(裁可)'로 순화.
- ④ ·提高(제고): 쳐들어 높임
·再考(재고): 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함

10. ㉠~㉢의 예를 추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논리학에서 비형식적 오류 유형에는 우연의 오류, 애매어의 오류, 결함의 오류, 분해의 오류 등이 있다.

우선 ㉠우연의 오류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나 규칙을 우연적인 상황으로 인해 생긴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오류이다. 그 예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중증 정신 질환자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중증 정신 질환자는 이성적인 동물이다.”를 들 수 있다. ㉡애매어의 오류는 동일한 한 단어가 한 논증에서 맥락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용될 때 생기는 오류를 말한다. “김 씨는 성격이 직선적이다. 직선적인 모든 것들은 길이를 지닌다. 고로 김 씨의 성격은 길이를 지닌다.”가 그 예이다. 한편 각각의 원소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로부터 그 원소들을 결합한 집합 전체도 역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결합의 오류이고, 반대로 집합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로부터 그 집합의 각각의 원소들 역시 개별적으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분해의 오류이다. 전자의 예로는 “그 연극단 단원들 하나하나가 다 훌륭하다. 고로 그 연극단은 훌륭하다.”를, 후자의 예로는 “그 연극단은 일류급이다. 박 씨는 그 연극단 일원이다. 그러므로 박 씨는 일류급

이다.”를 들 수 있다.

- ① ㉠ -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 ② ㉡ -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 고로 세상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 ③ ㉢ -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미국 선수 각자는 세계 최고 기량을 갖고 있다.
- ④ ㉣ - 그 학생의 논술 시험 답안은 탁월하다. 그의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10. 답) ②. [난도 중, 논리적 오류] - 예상한 문제 유형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분해되는 과정을 이르는 ‘부패’와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함을 이르는 ‘부패’는 표기와 발음은 같지만 맥락이 다른 단어다. 이것을 동일한 것으로 인식했으므로 ‘애매어의 오류’에 해당한다.

<오답 콕>

- ① 연역추론 ③ 분해의 오류 ④ 합성의 오류

11. 다음 글의 주된 설명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르다. 즉 실제 생활은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지만 이 재료들이 일단 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 그 본래의 재료로서의 성질과 모습은 확연히 달라진다.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을 떠올려 보자. 건축가는 어떤 완성된 구조를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서 적절하게 집을 짓게 되는데, 이때 건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를 완성하게 되면 이 완성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된 재료들은 본래의 재료와 전혀 다른 것이 된다.

- 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 ②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는 물론 많지만 그중에서도 인물, 배경, 사건을 들 수 있다. 인물은 사건의 주체, 배경은 인물이 행동을 벌이는 시간과 공간, 분위기 등이고, 사건은 인물이 배경 속에서 벌이는 행동의 세계이다.
- ③ 목적을 지닌 인생은 의미 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험난한 인생의 노정을 완주하지 못한다. 목적을 갖고 뛰어야 마라톤에서 완주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 ④ 신라의 육두품 출신 가운데 학문적으로 출중한 자들이 많았다. 가령, 강수, 설총, 녹진, 최치원 같은 사람들은 육두품 출신이었다. 이들은 신분적 한계 때문에 정계보다는 예술과 학문 분야에 일찌감치 몰두하게 되었다.

11. 답) ③. [난도 중, 논리적 전개방식] - 예상한 문제 유형

문학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건축가가 집을 짓는 과정을 제시했다. 어려운 것을 설명하는데 우리에게 친숙한 것으로 설명한 ‘유추’에 해당한다. 인생을 친숙한 마라톤으로 설명한 ③이 적절하다.

<오답 콕>

- ① 르네상스 시대 화가와 인상주의 화가의 공통점을 말했다. ‘비교’에 해당한다.
- ②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로 나눈 ‘분석’이었다.
- ④ 육두품 가운데 학문적으로 출중한 예를 들었다. ‘예시’다.

1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세잔이,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 인상주의자들은 순간순간의 감각에만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자연의 굳건하고 지속적인 형태는 소홀히 했다고 느꼈던 것이다. 반 고흐는 인상주의가 시각적 인상에만 집착하여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을 탐구한 나머지 미술의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고갱은 그가 본 인생과 예술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불만을 느꼈다. 그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고 그것을 원시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이 세 사람의 화가가 모색했던 제각각의 해법은 세 가지 현대 미술 운동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 세잔의 해결 방법은 프랑스에 기원을 둔 입체주의(cubism)를 일으켰고, 반 고흐의 방법은 독일 중심의 표현주의(expressionism)를 일으켰다. 고갱의 해결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프리미티비즘(primitivism)을 이끌어 냈다.

- ① 세잔은 인상주의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 ② 고흐는 인상주의가 강렬한 정열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다.
- ③ 고갱은 인상주의가 충분히 솔직하고 단순했다고 생각했다.
- ④ 세잔, 고흐, 고갱은 인상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각자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12. 답) ③. [난도 중, 읽기 - 사실적 내용] - 예상한 문제 유형

본문에 제시된 ‘그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고’에서 알 수 있다. 고갱은 인상주의가 충분히 솔직하고 단순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3.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처럼 좋은 길 어떻게?
- ② 제 3장의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 ③ 공사를 진행한 지 꽤 오래되었다.
- ④ 결혼 10년 차에 내 집을 장만했다.

13. 답) ②. [난도 하, 띄어쓰기] - 예상한 문제 유형

제3V장의/ 제3장의.

→‘제-’는 접두사로 뒷말과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그리고 순서를 나타낼 때에는 단위 의존명사와 붙여 쓸 수 있다.

14. ‘깁다’의 활용형에 적용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탈락: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첨가: 없던 음운이 생기는 현상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또 다른 음운 하나로 바뀌는 현상
- 도치: 두 음운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현상

- ① ‘깁는’은 교체 현상에 의해 ‘깁는’으로 발음된다.
- ② ‘깁아’는 탈락 현상에 의해 ‘까까’로 발음된다.
- ③ ‘깁고’는 도치 현상에 의해 ‘깁꼬’로 발음된다.
- ④ ‘깁지’는 축약 현상과 첨가 현상에 의해 ‘깁찌’로 발음된다.

14. 답) ①. [난도 중, 음운현상] - 예상한 문제 유형

‘깁’이 비음화 현상으로 ‘ㅇ’으로 바뀐 것인데, ‘교체’에 해당하는 다.

<오답 콕>

- ② 연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받침을 뒤에 옮겨 발음한 것이다. ‘탈락’은 일어나지 않았다.
- ③ ‘깁’이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ㄱ’으로 바뀐 ‘교체’다. 그리고 뒤에 ‘ㅁ’은 ‘첨가’로 볼 수 있다.
- ④ ‘깁’이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ㄱ’으로 바뀐 ‘교체’다. 그리고 뒤에 ‘ㅁ’은 ‘첨가’로 볼 수 있다.

15.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포스트휴먼’은 그 기본적인 능력이 근본적으로 현재의 인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스웨덴 출신의 철학자 보스트롬은 건강 수명, 인지, 감정이라는, 인간의 세 가지 주요 능력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능력에서 현재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엄청나게 넘어서는 경우 이를 ‘포스트휴먼’으로 부르자고 제안하였다.

현재 가장 뛰어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며,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노화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젊음과 활력을 계속 유지하는 어떤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존재는 스스로의 심리 상태에 대한 조절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피곤함이나 지루함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미움과 같은 감정을 피하고, 즐거움, 사랑, 미적 감수성, 평정 등의 태도를 유지한다. 이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지금은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인간의 상태로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신체나 의식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포스트휴먼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지능일 수도 있고, 신체를 버리고 슈퍼컴퓨터 안의 정보 패턴으로 살기를 선택한 업로드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또는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다. 만약 생물학적 인간이 포스트휴먼이 되고자 한다면 유전 공학, 신경약리학, 항노화술, 컴퓨터-신경 인터페이스, 기억 향상 약물, 웨어러블 컴퓨터, 인지 기술과 같은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두뇌나 신체에 근본적인 기술적 변형을 가해야만 할 것이다. ‘포스트휴먼’은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았을 법한 슈퍼 인간의 모습을 기술한 용어이다.

① 포스트휴먼 개념에 따라 제시되는 미래의 존재는 과학 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현재의 인간에 비해 더 크게 받을 것이다.

② 포스트휴먼 개념은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보완하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에 귀결될 것이다.

③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형태가 어떠한지 여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 있다.

④ 포스트휴먼은 건강 수명, 인지 능력, 감정 등의 측면에서 현재의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포스트휴먼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 새로 구성될 것이다.

15. 답) ②. [난도 상, 읽기 - 추론적 능력] - 예상한 문제 유형

건강 수명, 인지, 감정이라는 인간의 세 가지 주요 능력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능력을 과학 기술의 보완으로 넘어서는 새로운 존재를 포스트휴먼이라 한다. 즉 신체적 한계를 과학 기술로 극복하는 것이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콕>

- ① 과학 기술의 발달로 포스트휴먼이 실현되는 것이므로 현재의 인간들보다 미래의 인간은 과학 기술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③ 포스트휴먼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지능일 수도 있고, 신체를 버리고 슈퍼컴퓨터 안의 정보 패턴으로 살기를 선택한 업로드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또는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다. 즉 그 형태는 아직 알 수 없다.
- ④ 기본적인 능력이 근본적으로 현재의 인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 ‘포스트휴먼’이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개념을 달리 규정해야 할 것이다.

16. 반의 관계 어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크다/작다’의 경우,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 ② ‘출발/도착’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 ③ ‘참/거짓’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은 다른 쪽 단어의 긍정을 함의한다.
- ④ ‘넓다/좁다’의 경우,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한다.

16. 답) ①. [난도 상, 어휘의 관계] - 예상한 문제 유형

‘크다/작다’는 ‘크지도 작지도 않다’처럼 양극에 속하는 두 의미를 모두 부정해도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 대립 관계의 단어, 즉 정도 반의어(등급 반의어, 반대 관계)다.

<오답 콕>

- ② ‘출발/도착’은 ‘출발하지 않았다’가 반드시 ‘도착’이 되지 않고, ‘도착하지 않았다’가 반드시 ‘출발’이 되지 않는 반의어, 즉 방향(상관) 반의어다.
- ③ ‘참/거짓’은 양립이 불가능한 의미의 대립으로 ‘참’이 아니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아니면 ‘참’이 되는 반의어, 즉 상보 반의어다. 이것은 한 단어의 긍정적인 면이 다른 단어의 부정적인 면을 함의한다.

④ ‘넓다/좁다’는 ‘넓지 않다’는 ‘좁다’가 되고, ‘좁지 않다’는 ‘넓다’가 되는 것으로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한다. 양극에 속하는 두 의미를 모두 부정해도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 대립 관계의 단어, 즉 정도 반의어(등급 반의어, 반대 관계)다.

17.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말썽을 ㉠술^ㅅ불리 하디 天命을 疑心^ㅎ실씩 꾸므로 ㉡뵈^ㅅ아시니
놀애를 브르리 ㉢하^ㄷ던 天命을 모르실씩 꾸므로 ㉣알^ㅅ외시니

(말썽을 아뢴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의심하시므로 꿈으로 재촉하시니 노래를 부를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모르므로 꿈으로 알리시니)

- 용비어천가 13장 -

- ① ㉠에서 ‘-이’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기능한다.
- ② ㉡에서 ‘-아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기능한다.
- ㉢에서 ‘-ㄷ-’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기능한다.
- ④ ㉣에서 ‘-외-’는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기능한다.

17. 답) ④. [난도 상, 고전문법] - 예상한 문제 유형

‘알+오+이+시+니’로 분석된다. 여기서 ‘-오-’는 사동접미사이며, ‘-이-’또한 사동 접미사다. 현대어로 ‘알리다’, 즉 ‘알게 하다’의 의미로 사동으로 해석한다.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니’는 종결어미다.

<오답 콕>

- ① ‘아뢴 사람’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술불+이’의 ‘이’는 주격조사 아니라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다.
- ② ‘재촉하다’의 의미가 있는 ‘뵈아다’의 어간에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전체를 선어말 어미로 봐서는 안 된다.
- ③ ‘-ㄷ-’는 대립적인 사실을 있는 데 쓰는 연결 어미로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아니다.

18.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동양의 음식 중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 음식 중 하나인 송편은 반달의 모습을 본뜬 음식으로 풍년과 발전을 상징한다. 삼국사기 에 따르면, 백제 의자왕 때 궁궐 땅속에서 파낸 거북이 등에 쓰여 있는 ‘백제는 만월(滿月) 신라는 반달’이라는 글귀를 두고 점술사가 백제는 만월이라서 다음 날부터 쇠퇴하고 신라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징표라고 해석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점술가의 예언이 적중했다. 이때부터 반달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이며, 그러한 뜻을 담아 송편도 반달 모양의 떡으로 빚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반달이 아닌 보름달 모양의 월병을 빚어 즐겨 먹었다. 옛날에 월병은 송편과 마찬가지로 제수 용품이었다. 점차 제례 음식으로서 위상을 잃었지만 모든 가족이 모여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눠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 때문에 보름달 모양의 월병은 둥근 원탁에 온가족이 모인 것을 상징한다. 한국에서 지역의 단합을 위해 수천 명분의 비빔밥을 만들듯이 중국에서는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월병을 만들 정도로 이는 의미 있는 음식으로 대접 받고 있다.

- ① 중국의 월병은 제수 음식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 ② 신라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송편을 빚었다.
- ③ 중국의 월병은 한국에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것을 본떠 만든 음식이다.
- ④ 삼국사기에 따르면 점술가의 예언 덕분에 신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18. 답) ②. [난도 하, 읽기 - 사실적 내용] - 예상한 문제 유형

‘반달’을 신라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징표라고 해석했다.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 송편도 반달 모양의 떡으로 빚었다고 했다.

<오답 콕>

- ① 점차 제례 음식으로서 위상을 잃었지만
- ③ ‘한국에서 지역의 단합을 위해 수천 명분의 비빔밥을 만들듯이 중국에서는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월병을 만들 정도로 이는 의미 있는 음식으로 대접 받고 있다.’의 내용이 있다. 이것으로 중국이 한국의 비빔밥을 본떠 월병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옳지 않다.
- ④ 점술가의 예언이 적중한 것이지, 이 예언 덕분에 신라가 크게 발전한 것은 아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문 20.]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부으려 하는데 ㉠갑자기 석양에 막 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괴이하게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고.’ 하였다. 이윽고 한 중이 오는데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특이하더라. 엄숙하게 자리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왈,
“산야(山野) 사람이 대승상께 인사를 드리나이다.”
승상이 이인(異人)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하여 왈,
“사부는 어디에서 오신고?”
중이 웃으며 왈,
“평생의 낮익은 사람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잘 잊는다는 말이 옳도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낮이 익은 듯하거늘 문득 깨달아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왈,
“소유가 전에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에 가서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께서 바로 그 노화상이냐?”
중이 박장대소하고 말하되,
“옳다. 옳다. 비록 옳지만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십 년을 같이 살던 일은 알지 못하니 누가 양 장원을 총명하다 하더뇨?”
승상이 어리둥절하여 말하되,
“소유가 ㉣열대여섯 살 전에는 부모 술하를 떠나지 않았고, 열여섯에 급제하여 줄곧 벼슬을 하였으니 동으로 연국에 사신을 갔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것 외에는 일찍이 서울을 떠나지 않았으니 언제 사부와 십 년을 함께 살았으리오?”
중이 웃으며 왈,

“상공이 아직 춘몽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도소이다.”
승상이 왈, “사부는 어떻게 하면 소유를 춘몽에게 깨게 하
리오?”
중이 왈,
“어렵지 않으니이다.”
하고 손 가운데 돌 지팡이를 들어 난간을 두어 번 치니 갑
자기 사방 산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에 쌓여 지
척을 분변하지 못했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에
취한 듯하더니 한참 만에 소리 질러 말하되,
“사부는 어찌 소유를 정도로 인도하지 않고 환술(幻術)로
희롱하나뇨?”
대답을 듣기도 전에 구름이 날아가니 중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낭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 김만중, ‘구운몽’ -

19. ㉠~㉣을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배열한 것은?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19. 답) ③. [난도 중, 고전소설] - 예상한 문제 유형

- ㉡: 현실에서 육관 대사와 성진이 스승과 제자로 살던 때
- ㉢: 성진이 꿈속에서 소유가 되어 살던 유년시절
- ㉣: 소유가 성장해 나라에 공을 세우고 꿈속에서 육관 대사를 만났을 때
- ㉠: 꿈에서 이제 현실로 돌아오기 직전

2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승상’은 꿈에 남악에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낮이 익은 듯하다고 여기기 시작한다.
- ② ‘승상’은 본디 남악에서 ‘중’의 문하생으로 불도를 닦던 승려였음을 인정한 뒤 꿈에서 깨게 된다.
- ③ ‘승상’은 ‘중’이 여덟 낭자를 사라지게 한 환술을 부렸음을 확인하고서 그의 진의를 의심한다.
- ④ ‘승상’은 능과 낭자와 어울려 놀던 죄를 징벌한 이가 ‘중’임을 깨닫고서 ‘중’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된다.

20. 답) ①. [난도 하, 고전소설] - 예상한 문제 유형

“소유가 전에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에 가서 잔치하
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에 가서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
서 불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께서 바로 그 노화상이냐?”
승상은 꿈에 남악에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낮이 익
은 듯하고 여긴다가 적절하다.

<미소 쿡>

연화 도량의 중 성진이 세속에 대한 번뇌와 욕망 때문에 양소유
로 환생하여 팔선녀와 차례차례 만나면서 인간 세상의 온갖 부
귀공명을 다 누린 후 인간 세상의 부귀공명은 일장춘몽(一場春
夢)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불도에 전심한다는 내용으
로, 유교·불교·도교의 삼교 사상(三敎思想)이 융합된 몽자류 소
설이다.

총평 :

2018년 국가직 시험은 작년과 달리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할 수
있다. 맞춤법 등 전통적으로 출제되던 규범 문제가 줄고 읽기와
문학이 많이 출제되어 시간에 압박을 상당히 느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출제 영역별로 살펴보면, 공부한 학생과 공부하지 않은 학생
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국어규범과 관련된 것이 5문항 출
제되어 작년보다 1문항 줄었다. 구체적 영역은 로마자 표기, 고
전문법, 음운현상, 띄어쓰기, 품사 등인데, 보조사와 고전 문법
문제에서 침착하지 못했다면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
다. 작년에 이어 국어 규범 영역은 많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여전
히 놓쳐서는 안 되는 영역이므로 수험생들은 국어문법을 중심으
로 한 규범을 세밀하게 정리해 두는 학습 태도는 여전히 중요하
다.

읽기와 쓰기는 작년보다 4문제가 많은 6문제가 출제되었다.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지문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물은 문제
는 까다로웠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지문은 그리 길지 않았고 내
용 또한 평이했다. 수업시간에 강조했듯이 평소에 생소한 지문
을 지속적으로 읽는 학습법을 실천한다면 이 영역은 쉽게 정복
할 수 있다.

문학은 작년보다 줄었지만 5문제가 출제되었다. 시조, 고전소
설(구운몽), 현대시(사평역에서), 현대소설(봄봄) 한시 등 전영
역이 고르게 출제되었다. 기존의 공무원 시험에서는 한 작품에
한 문제를 내는 것이 일상적이었지만, ‘구운몽’의 지문을 이
용해 2문제를 출제한 것이 이색적이다. 작품은 평소에 익숙한
작품이었는데, 문학의 기초 감상법을 충실히 익힌 사람은 어렵
지 않았을 것으로 사려된다. 수험생은 이 작품을 배웠다 배우지
않았다고 접근하는 학습법을 버리고 영역에 따른 기초 감상법을
충실히 익혀 어떤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어휘는 작년보다 2문항이 줄어 3문항이 출제되었다. 한자와
한자어, 단어의 관계를 물었는데, 수험생이 언제나 어렵게 생각
하는 한자가 출제되었으나 한자를 지속적으로 학습한 사람이라
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도리어 반어 관계를 묻는 문제는 상당
히 까다로웠을 것이다.

기타 문제로 논리적 오류가 1문제 출제되었는데,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2018년 국가직 시험은 고전문법, 반의 관계 그리
고 읽기와 문학 지문이 많이 출제되어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까다로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난도 상인 문제는 4문제 출제되었고, 난도 중인 문제가 11문제,
난도 하인 문제가 5문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상
위권 학생들은 80점은 맞아야 하는 시험으로 작년보다 3개 정도
어려웠다고 분석할 수 있다.